

장성호 수변 트레킹 겨울낭만 가득 인기

호수 풍경 장관·걷기도 좋아 가족단위 관광객 등 북적

색다른 겨울 호수 풍경을 찾는 관광객들로 장성호 수변 트레킹길이 여전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호 수변길은 나들이철인 지난해 가을(9-11월)에만 9만4000여명이 다녀간 데 이어 12월 이후에도 주말마다 주차장이 마비될 정도로 붐비고 있다.

장성군은 장성호를 한바퀴 도는 34km 길이의 '장성호 100리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7년 장성호 제방부터 북이면 수성리까지 나무데크길과 기존 임도를 활용해 7.5km구간을 먼저 관광객에게 개방했다.

당시 숲과 호수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매력 덕분에 정식 개통을 하기도 전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왔고, 이후 입소문을 타면서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장성호 수변길은 숲이 만들어진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맑은 호수가 빛어낸 잔잔한 물결소리를 들을 수 있어 겨울추위에 아랑곳없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앞이 진 나뭇가지 사이로 겨울햇살이 가득 들어와 걸으면서 오히려 포근한 느낌을 받는다고 관광객들은 입을 모은다.

겨울 호수는 추위가 더해질수록 물이 맑고 깊어지는 게 특징이고 겨울 바람이 일으키는 잔잔한 물결 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다고 관광객들은 전했다.

수변길이 평지에 가깝고 임도도 완만해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가볍게 나들이 하기 좋고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 코스도 컨디션에 맞게 일정 거리별로 즐겨도 된다.

지난해 6월 개통한 장성호 출렁다리 수변길 시작점에서 1.2km 지점과 2.7km 지점을 연결한 다리로 수변길의 걷는 재미를 더하고 있다는 평가다.

장성호 수변길은 지난해 2월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대한민국 대표 걷기길로 선정되고, 9월에는 전라남도도 추천하는 대표 관광지에 이름을 올렸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호는 숲과 호수가 어우러진 멋진 풍경만으로도 엄청난 관광 가치가 있다"며 "장성호 100리길을 계획대로 추진해 장성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긴 명절 연휴 가족들과 함께 가볍게 나들이 오셔서 멋진 장성호를 둘러 보시길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청량한 공기를 마시며 맑은 호수가 빛어낸 잔잔한 물결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성호 수변길의 겨울 풍경. (장성군 제공)

담양 신제품 딸기 '메리퀸' 전문가 호평

농진청·가락동 경매사 대상 평가회 고당도·고경도 품종 인정

담양에서 생산한 신제품 딸기 '메리퀸'이 유통전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30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농촌진흥청과 함께 가락시장 경매사와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담양 딸기 신제품인 메리퀸에 대한 시장성 평가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개최했다.

메리퀸은 '실향'과 '매향'을 교배한 육성 재배 품종으로 11월 하순이면 첫 수확이 가능해 수확기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당도가 높아 맛이 좋고, 경도 역시 높아 3월에 기온이 올라가면 쉽게 물러지는 다른 딸기와는 달리 메리퀸은 단단하고 식감이 좋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확해 소비자 식탁에 올라가기까지 고품질을 유지한다.

가락시장에서 열린 평가회에서도 메리퀸에 대한 품질 평가는 호평이 많았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메리퀸의 육성자인 이철규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박사는 "고당도·고경도 딸기 품종인 메리퀸은 우수한 맛에 저장성까지 갖춰 소비자와 유통인 모두에게 선호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메리퀸의 안정적인 도매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재배면적을 조기에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메리퀸 재배면적의 확대는 올해 담양 딸기 명품화 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2013년 육성한 딸기 '죽향'을 통해 이미 딸기 시장에서 명품 딸기로 명성을 다졌다. 이후 개발된 메리퀸은 지난 2017년 농가 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 기준 재배면적이 8ha에 이르렀다.

담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최근 열린 '메리퀸' 품종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신제품 딸기를 시식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딸기 단지 조성을 통해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라며 "죽향과 함께 메리퀸이 명실상부한 명품 딸기로 전국 시장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서영준 기자 syj827@

장성아카데미, EU OWR 최장 사회교육 프로그램 인증

장성군의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세계기록 인증기관인 EU(유럽연합) OWR(오피셜월드레코드)로부터 최장 기간 열린 정기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았다.

장성군은 지난해 한국기록원이 공인한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개최 기록을 EU OWR에 심의 요청해 이러한 인증을 받았다. 공식인증서는 3월 전달받을 예정이다.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다'를 기치로 1995년 9월 15일 첫 강좌를 열었다.

주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주 목요일 강연을 이

어왔다. 1075회 열린 강좌에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임권택 영화감독, 조정래 작가, 한비야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교장,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료원 경기남부권역의상센터장 등 각계 인사들이 거쳐 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장성아카데미 사례가 담긴 책자 '주식회사 장성군'을 모든 공직자에게 이메일로 소개하기도 했다.

장성군은 매해 전년도 강연 자료를 묶어 책자로 발간했고, 2015년부터 판매 수익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성군, 음식문화 지도사·해설사 등 전문가 양성

장성군이 지역 외식 관광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음식문화 전문가를 양성한다.

장성군이 올 상반기 처음 도입하는 전문 교육 과정은 음식문화 지도사와 해설사, 소비자 식품위생감사원 등 3가지 분야로 운영한다.

교육은 장성의 음식문화 정체성을 찾고 관광지마다 차별화한 메뉴를 발굴하는데 중점 둔다.

홍보 동영상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장성 음식을 알리는 시도를 한다.

서비스 향상과 위생 관리, 국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한 음식 트렌드 대응 등도 다룬다.

참가 신청은 이달 말까지 장성군 환경위생과(061-390-7312)에서 접수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군, 설 연휴 '상수도 생활민원 상황실' 운영

화순군이 설 연휴기간인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상수도 생활민원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된다. 상황관리반에서 상수도 누수와 단수, 계량기 고장 등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긴급복구반이 즉시 출동해 보수한다.

군은 배수지, 가압장 등 각종 시설물을

연휴 전까지 점검해 연휴 동안 집중되는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상수도 시설물 사전 점검과 정비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문제 발생 시에는 생활민원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하게 복구 처리해 귀성객과 군민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담양군, 지역 역사·문화특색 담은 '관광기념품 공모'

담양군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특색을 살린 독창적이며 실용적인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해 '2019 담양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대상은 담양을 떠올릴 수 있고 상품화가 가능한 관광기념품이다.

공모전 접수는 오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며, 출품 희망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출품작과 함께 담양군청 자치혁

신국 녹색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상자에게는 대상(1점) 200만원, 금상(1점) 150만원, 은상(2점) 각 100만원, 동상(3점) 각 50만원, 장려상(5점) 각 30만원의 상금 및 상장이 수여되며 입상작은 담양군의 관광기념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담양군 녹색관광과(061-380-3151)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서영준 기자 syj827@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	○
	국제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11(금) ~ 21(월)
- 전 형 일: 2019. 1. 24(목)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신학과(Ph.D.)	○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사회복지학과(D.S.W.)	○
		신학과(Th.M.)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21(월) ~ 2. 1(금)
- 전 형 일: 2019. 2. 8(금) 오후 2시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19. 1. 21(월) ~ 2. 1(금)
- 전 형 일: 2019. 2. 8(금) 오후 2시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